

# 위령 성월

편집팀

## 1. 위령 성월과 위령의 날

위령 성월이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로써,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위령의 날' 과 관계가 깊습니다. 998년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인 오딜로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도자들에게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것이 널리 퍼지며 위령의 날이 되었고, 결국 11월 전체가 위령 성월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비오 9세(1846-1878)를 비롯한 여러 교황은 위령 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위령 성월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다가올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령 성월은 전례력으로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미사 중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 적으로 듣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낙엽이 지는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게 됨으로써,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2. 통공과 연옥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위령 성월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성인의 통공' 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청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1요한 1, 8)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위령 성월을 지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연옥' 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 이후 연옥에 관한 교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간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지만, 보통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씻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혼을 위해 기도와 자선, 미사 봉헌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 3. 위령 성월과 우리의 자세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기하게 하며,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세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도록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위령 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연옥의 과정을 겪고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여 성실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위령 성월의 이러한 의미를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깨닫고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하여, 모든 주일학교 구성원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친지들과 그 밖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 「가톨릭 디다케」 1995년 11월 <이달의 전례 신심>, '위령 성월'
- 「가톨릭 디다케」 1991년 11월 <이달의 전례 교육>, '위령 성월'
- 「가톨릭 대사전」 9권 '위령 성월'

